

기보배 마지막 한 발 ... “금메달이다” 새벽 깨운 환호성

광주여대서 단체 응원전

기보배 선수 부모도

시민·동문들과 함께 응원

한 발 한 발 쓸때마다

“히트다 히트” 함성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8일 새벽 광주여대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들쭉거렸다.

최미선(20·광주여대), 기보배(28·광주시청), 장혜진(29·LH)으로 꾸려진 대표팀이 금메달을 확정 짓는 순간, 기보배 선수 부모와 광주여대 동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리며 환호했다.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 기동연(67)씨와 어머니 김남연(62)씨도 안산 자택에서 광주로 내려온 뒤 8강전 시작 전인 새벽2시께 광주 여대를 찾아 딸과 선수들을 응원했다.

아버지 기씨는 응원전을 펼치다 선수들의 화살이 10점 과녁을 벗어나는 장면을 본 뒤 아쉬움을 표시하며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보다 더 긴장되고 초조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어머니 김남연씨도 딸의 한 발, 한 발을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10점 과녁을 명중할 때는 박수치며 기뻐했다.

광주여대 출신인 기보배 선배와 동료인 최미선을 응원하기 위해 밤잠을 안자고 응원장을 찾은 동문들은 ‘히트다, 히트’, ‘기



리우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열린 8일 오전 광주여자대학에서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 기동연 씨와 어머니 김남연 씨 등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세를 모아 보란듯이 싸라. 당신의 배역은 주인공”이라는 응원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응원했다. 재학생 김혜진(4학년)씨도 “제가 마치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긴장돼 심장이 떨렸고 짜릿했다”면서 “단

체전 뿐 아니라 개인전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은·동을 다 따낼 거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금메달 확정된 뒤 기씨는 “응원해주고 성원에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개인전에

서도 메달 색깔 구분 없이 우리 세 선수들 나란히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씨도 “딸 보배가 경기 전 금메달을 꼭 따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면

서 “딸이 귀국하면 좋아하는 갈비찜 등을 차려줄 것”이라고 했다.

최미선 부모들은 이날 무안에서 마을 주민들과 응원전을 펼쳤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런던올림픽 2관왕·광주 U대회 금한국 여자양궁 이끄는 ‘간판 스타’

광주시청 기보배

기보배는 한국 여자양궁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다. 지난 2010년 태극마크를 단 이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한국 양궁의 에이스다.

그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올랐고 지난해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개인·혼성팀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기보배는 이번 올림픽으로 금메달 하나를 추가했고 남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더 따면 사상 첫 올림픽 개인전 2연패와 동시에 올림픽 금메달 개수에서 김수녕과 타이(4개)를 이루게 된다.

슬럼프도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나가지 못했다.

당시 활 대신 방송 마이크를 잡았던 기보배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동료 선수들의 모습이 동기부여가 됐다”고도 말했다.

기보배는 이듬해인 2015년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개인·혼성팀전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부활을 알렸다.

오르기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정상의 자리를 부단한 연습을 통해 지켜왔다. 기보배 선수 어머니는 8일 광주여대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하는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는 노력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CNN방송은 8일 기보배를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사상 첫 2연속 개인전 금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며 오늘의 선수로 소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체고 시절 전국대회 5관왕 세계 랭킹 1위 ... 차세대 에이스

광주여대 최미선

최미선(20·광주여대)은 세계 랭킹 1위, 한국 여자 양궁의 ‘신궁 계보’를 잇는 차세대 스타로 꼽힌다.

그는 무안 일로초 3학년때 양궁감독의 권유로 처음 활을 잡은 뒤 전남체육중에 입학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남체고 시절엔 화랑기를 비롯해 중고 연맹, 전국남녀중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5관왕을 기록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지난해 전남체육고를 졸업하고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에 입학한 뒤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며 기보배를 이을 차세대 양궁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최미선은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양궁 선수로서의 장점인 긴 팔과 긴 손가락을 가졌고 지구력과 근성이 탁월하다. 특히,

강한 슈팅은 백발백중의 원동력이라는 평가다.

한국 올림픽 대표선발전은 1위로 통과하며 태극마크를 달았고 5월 콜롬비아 매데진, 6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현대 양궁월드컵 2·3차 대회에서 연속 3관왕에 오르는 등 올해 열린 모든 대회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최미선의 롤모델은 기보배다. 수도권 대학에서 러브콜이 잇따랐지만 모두 거절하고 광주여대를 선택한 것도 기보배의 영향이 컸다. 체육중 시절부터 눈여겨보며 공을 들인 김씨는 광주여대 양궁 감독도 한 몫 했다.

그는 8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금메달의 맛”을 물어보자 “단체전 금메달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개인전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심도 난다”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양궁 사상 첫 전종목 석권 기대감

한국 남·여 양궁 선수단이 나란히 올림픽 단체전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면서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현재 양궁 남녀 개인·단체전에 걸려있는 4개의 금메달 중 2개를 거머쥐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7일 미국을 누르고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선수단은 8일 새벽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여 대표팀 모두 정상 ‘수상’에 대한 부담감과 경기장의 강한 ‘도깨비 바람’을 제압하며 이뤄낸 승리였다.

여자부도 단체전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이번엔 없다”는 분위기가 워한다. 경쟁 상대로 거론되던 남자단체전의 미국, 여자단체전의 대만도 한국 대표팀에 못 미치는 실력을 드러냈다.

남여 대표팀은 8일 밤부터 개인전 64강전에 돌입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림픽 단체전 8연패 의미

양궁 단체전 도입 후

32년간 세계 최강자

올림픽 8연패(連覇)는 얼마나 값진 기록일까.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단체전 8연패는 전체 올림픽 종목을 통틀어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대기록이다.

양궁 단체전이 도입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8년 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회 개막 전까지 특정 종목에서 올림픽 정상을 오래 지킨 나라는 미국과 케냐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남자수영 400m 혼계영에서 13연패를 달성했고 케냐는 남자 3000m 장애물에서 8연패를 이룩했다. 미국 남자 육상팀은 400m 계주 부문에서 8연패(1920안트베르펜~1956년 멜버른)를 달성했었다.

양궁 불모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는 점,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꽃잎이 버터운 자리인 점에서 경이적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국제양궁연맹(ITA)의 잦은 규칙 변경에도 아랑곳없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온 점도 의미가 크다.

국제양궁연맹은 지난 1984년 LA 대회 이후 올림픽 경기 방식을 올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바꿨다. 올해도 단체전 경기 규칙을 세트제로 변경했다. 이번 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임하지만 대표팀의 금메달 레이스는 막지 못했다.

문형철 대표팀 감독과 기보배도 “단체전 경기 규칙이 바뀌는 등 건제가 심하고 주변 부담감을 안고 나섰지만 한 마음으로 우승을 일궈냈다”고 했다.

경기장 내 소음과 바람 등 자연의 도전도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리우올림픽 경기장을 재현한 환경에서 사물레이션을 하는가 하면, 현장 소음을 훈련장에 그대로 적용해 적응력을 키웠고 고척돔 야구장에서 소음 훈련도 병행했다.

하지만 등록 선수가 1500여명에 불과한데, 아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소년체전 축소, 전국체전 열기 감소 등과 맞물려 양궁 경기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정상의 실력을 유지해나갈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목포조선공업 주식회사 M&A 공고

1. 개요

- 회사 개요 : 광주지법법원 관할의 회생회사로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영위
- M&A 방법 : 제3자 매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 입찰 방법 : 공개경쟁입찰

2. M&A 진행 일정

- 인수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8월 18일(목) 17:00까지 (대한민국 서울시간)
 - 접수장소 : 대주회법인 대주회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1(화정동 783-20)대평빌딩 6층]
 - 제출서류 : 인수의향서 및 관련 부속서류
-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
 - 인수의향서 제출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는 회사소개자료 (UM) 등의 자료 제공과 Q&A 등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임.
- 예상 입주 진행 절차
 - 인수의향서 접수(정보이용료 납부 포함) 및 사전심사 → 예비심사자료 제공 → 입찰 서류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 정밀심사 수행 → 부자계약 체결

3. 기타사항

- 인수의향서 작성 안내문 및 관련 부속서류 양식은 매각주간사에 요청하여 수령함.
- 인수의향서 접수 이후의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인수의향서 접수 후 개발정보 매칭이며 입찰 참가는 인수의향서 제출자로 제한함.
- 인수의향서, 입찰서류 등 본진 M&A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필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 참가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반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본 M&A 진행 절차, 인수의향서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접수 여부, 적격투자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등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회사 및 주간사의 고유권한으로, 잠재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M&A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예관법’을, 광주지방법원 회생심부준의 제12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관한준칙’ 및 회생회사 M&A 거래에서의대한민국법원의일반적인실무관행등에따름, 본 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의향서 제출요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청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유는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만 이루어짐.

본 M&A 진행 관련 문의사항은 매각주간사인 대주회법인 (TEL : 010-4829-3235)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조선공업 주식회사M&A 매각주간사
대주회계법인

公國家
認家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3기)	광주교육대학교(1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 2016. 9. 2(금) 08:10~08:50 · 토요일 오전반 : 2016. 9. 3(토) 08:10~08:50	· 월요일 오전반 : 2016. 9. 5(월) 08:10~08:50 · 월요일 오후반 : 2016. 9. 5(월) 14:10~14:50 · 목요일 오전반 : 2016. 9. 1(목) 08:10~08:50 · 토요일 오후반 : 2016. 9. 3(토) 14:10~14:50
모집기간	2016. 8. 1(월) ~ 9. 3(토)	2016. 8. 1(월) ~ 9. 3(토)
수업기간	2016. 9. 2(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9. 5(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8: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8: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 강 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수료후 특 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학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학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8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8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을 상권희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담양군 수북면사무소 북동측근근 입야2428평 계획관리지역 투자기회 지대났음 준보전산지 ▶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2억2천**
- 담양군 담양읍 5층속박시설 450평 객실28개 토지140평 투자기회우수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4억5천(감정가 45%)**
- 광산군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빌1개 수문초,신창중학교 위치 및 건물최상 ▶ **최저가4억7천만원**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2층건물109평 대지155평 코너위치 음식점 추천,주공아파트후문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우산동 숙박시설 4층건물208평 대지 65평 객실 17개 지하주차장있음 상업지역 ▶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2억7천만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감정가 3억5백 최저가 2억2천만원**
- 광산군 대산동 공장 건물172평 토지685평 잡종지 창고 및 교물상추천 도로접 ▶ **최저가 2억7천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 육 특 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천투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금) ~ 2016. 9. 9(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